

보도설명자료 (‘18. 5. 4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윤성혁 과장(044-203-4280)

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

통상법무기획과 조수정 과장(044-203-4550)

조무경 사무관(044-203-455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철강 8개 품목, 대미 쿼터 채워 올해 수출
불가능” (‘18 . 5. 4, 연합뉴스 등)

1. 기사내용

-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일부는 이미 쿼터를 채워 올해 수출이 불가능함
 - 추가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은 총 54개 품목 중 8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올해 美 쿼터가 충족된 철강 품목은 54개 품목 중 9개*로, 이 중 2개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쿼터 물량이 없는 품목이며, 기타 7개도 우리 주력 수출품은 아님
 - * 9개 품목의 연간 쿼터 물량 소계 : 4.9만톤
- 동 7개 품목의 경우, 우리 기업들이 올해 1~4월 기간 동안 지난 15~17년 평균 수출량의 70%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미 모두 수출한 것임
- 한편, 소진된 9개 품목의 쿼터 물량은 약 5만톤으로, 전체 쿼터 물량 263만톤 중 1.9%에 불과한 수준임
- 전체 철강재 기준으로, 현재 美 쿼터 소진율은 34.6% 수준(1~4월, 수출통관 기준)으로,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연간 쿼터 물량이 남아있음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